<보기>는 학생의 독서 일지이다. ⓐ～ⓒ와 관련하여 학생의 읽기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체독(體讀)’이라는 독서 방법이 궁금해서 인공지능으로 자료를 생성해서 읽어 보았다. 생성된 자료에 ‘체독은 글의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아 몸으로 느끼며 읽는 읽기입니다.’ 라는 설명이 있었다.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아’라는 말이 어려워서 추가적인 자료를 생성해서 알아보았다. 생성된 자료 에서 ‘동양인의 높은 정신 수준에 적절한 독서 방법’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들어, 체독에 관한 동양의 다양한 사례를 더 생성하여 읽어 보았다. 자료를 읽다 보니 동양의 사례만 찾아 보고 있는 것 같아, 방향을 달리하여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체독 사례를 생성해서 읽어 보았다. 체독에 대해 알게 된 후 인공지능이 제공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다. 주말에는 인공지능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에서 다른 책을 더 찾아 읽어 보아야겠다.

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생성’한 것은, ⓑ를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② ‘다양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생성한 것은, ⓐ를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③ ‘방향을 달리하여’ 자료를 생성한 것은, ⓒ를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④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자료를 읽은 후 ‘인터넷 검색을 해’ 본 것은, ⓒ를 점검한 것에 해당하겠군.

⑤ ‘인공지능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책의 내용과 비교하고자 한 것은, ⓐ를 점검하는 것에 해당하겠군.